

# 단계적 일상회복, 전북관광 기지개 펴다

### 안전·안심 관광태세 구축으로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 도모·현장 방역요원 297명 배치·안심관광지 60개소 운영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가 그간 집계된 관광산업 불 지피기에 나선다. 도는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서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 방역 수용 태세 확립과 '청정·안전 여행지 전북'에 대한 전방위 마케팅을 펼쳐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먼저, 도는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방역요원 297명을 관광지별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심관광지인 '청정·안전 전북' 콘텐츠 기반의 생태관광, 한눈에 보는 전망대, 고대관광, 차박캠핑, 체험관광 등 5개 테마별 관광지 60개를 발굴해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입실치즈테마파크 등 23개소에 국비 44억 원을 투입해 관광지 환경도 개선했다. 또한, 2022년에는 전주 동물원, 남부시장 등 9개소를 대상으로 국비 22억 원을 투입해 관광지 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 외에도, 아영문화 선호 MZ 세대를 위한 아영장(131개소) 시설의 안전사고·화재방지 등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도는 철저한 방역 속에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관광산업 피해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광홍보·마케팅도 추진한다. 지난 9월 초부터 KTX와 연계한 열차여행 투어버스인 일명 '기차티고! 버스타고!' 오늘은 전북가자'를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시작해 현재

1,600여 명을 유치한 상태다. 또, 전북의 대표 관광플랫폼인 '전북투어패스'도 특별 이벤트로 11월 여행주간 동안 1+1 행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도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여행 쿠폰'도 50~5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체부는 여행업 경영환경을 지원하고, 침체된 국내 여행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토닥토닥 힐링여행 쿠폰'을 발행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11월 중순 여행상품 가격의 40%를 할인해 최대 16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특히, 힐링여행 쿠폰과 연계해 전북여행 상품에 대해 10% 추가 할인을 3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여기에 도내 여행사의 전북여행 상품

에는 추가 5%, 4만 5천 원을 지원해 최대 55% 할인이 적용된다. 도는 국가 방역단계 변동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철저한 방역준수를 전제로 대면 축제 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하던 지역축제의 현장 개방을 확대한다. 백신패스,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안고원 김치보살 축제 등 작은축제 7개, 남원 지리산 배래봉 눈꽃 등화 축제 등 겨울축제 4개를 현장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민이 감염 걱정없이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전북 여행' 생태계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 전북도는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농어촌공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이하 KCL)이 참여했다.

##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체험관 재개관

### 타임별 예약제 운영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체험관(이하 체험관)'이 4차 산업기술기반인 VR, AR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한 융복합 테마체험시설로 새단장을 하고 9일 재개관했다. 체험관이 다시 문을 여는 것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의 여파로 휴관을 시작한 지 1년 9개월만으로, 휴관기간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리모델링된 체험관은 스토리가 구

성돼 있어 1층부터 3층 순서대로 관람해야 하며, 스토리 이해도와 체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타임별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테마체험관의 전체적인 콘셉트는 암흑으로 뒤덮일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체험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체험을 통해 청정 에너지를 모아 지구를 구하는 것이다. 입장료는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3D영상관은 새로운 내용과 영상으로 추후 오픈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농업·농촌 빛낸 전북사람들

### 삼락농정농업인·농촌In 수상작 전시회 개최 19일까지·전북도청 1층 로비에 37점 전시

전북도가 9일 '전북 농업인의 날'을 맞아 '2021년 농업인·농촌In 수상작 전시회'를(이하 전시회) 오는 19일까지 도청사 1층 로비에서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행사 및 대회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전국 대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37점의 수상작을 특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회는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전국 지자체 중 전북도가 차별화해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전북 농업인의 날 행사와 연계해 개최하고 있어 많은 농업인들이 함께하는 전시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올해 전시되는 수상작을 살펴보면, ▲'보릿밭은 농민' 분야는 제5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가 방역 및 질병 발생 등을 모니터링하는 ICT 구축으로 AI 등 방역활동을 강화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주)삼프레 고희열 대표 총자 채종기술 정립 및 전파를 통한 농가 경쟁

력 제고에 앞장선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김제시 장수읍 씨 등 10점을 전시한다. ▲'제값받는 농업' 분야에는 증류 방식 추출기로 꾸지뽕 기름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로 농식품 가공체험 기업 승계농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진안꾸지뽕나무 영농조합법인의 안자민 씨와 전국 최초 및 최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최대 매출기록을 세워 로컬푸드 지수 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한 원주군 등 14점을 전시한다. ▲'시름없는 농촌' 분야는 특산물인 공을 활용한 체험 가공식품, 음식 판매 등으로 지난 10년간 마을 주민 2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로 효령을 받아 생생마을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정읍시 정문마을을 비롯해 같은 대회 장관상 고창군 흥덕면 농어촌공사 사장상 남원 산촌마을 등 10점을 전시한다. /유호상 기자

##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성황리 종료

### 코로나 시대, '귀농귀촌 키워드'로 1만명 도시민과 소통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 '2021 전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이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이 됐다. 이번 상담홍보전은 '전북도 귀농귀촌 온에어'라는 주제로 '비대면 화상 및 전화상담', '토론회', '유튜브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AR(증강현실)을 활용한 귀농귀촌 정책 홍보는 이번 행사기간에 온라인플랫폼 방문객이 1만 명이상이 참여했다. '농촌지역을 새로운 일터'로 인식하는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또한, 온라인상담에 참여한 13개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담당자와 멘토들이 300여 명의 도시민에게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시·군별 지원정책, ▲지역정보, ▲주거 등 귀농귀촌에 필요한 필수 정보는 물론, 다양한 여건과 상황에 따른 경험과 조언을 아낌없이 제공했다. 특히, 이번 상담홍보전에는 '귀농귀촌 토크콘서트'와 김제에 귀촌한 MBC PD 유튜버 '오느른'과의 토크

보 홍보가 이색적이었다. 100여 명의 온라인 참가자가 참여한 토크콘서트는 '성공하는 귀농귀촌을 위한 소통과 은퇴설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패널로 참가한 배한성 성우는 "꾸준히 준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성공의 기회를 보는 자가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고, 귀농귀촌도 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임원과 대학교수의 명함을 버리고, 농촌의 작은 양조장 주인이 된 전기보 행복한 은퇴연구소 소장은 은퇴설계를 고려하는 도시민들에게 '행복을 위한 귀농귀촌'을 조언했다. 또한, 김제시에 귀촌한 MBC PD가 운영하는 유튜브 '오느른' 채널을 통해 전북도와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귀촌PD들의 창업 지원 과정을 소개해 5만8천명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상담홍보전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민들이 전북의 귀농귀촌과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특별지정 장학제도 '가시적 성과'

### LS·한국무역협회·정석케미칼·농협도청점 등...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의사 지정·기탁서 제출

전북도와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전북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획기적 확대·개선 노력이 시작과 함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도와 진흥원은 장학사업의 재원을 다변화하고, 개인과 기업이 장학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부·후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장학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개인과 기업이 장학금을 기부할 때 이를 기금화해 그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저금리에 따른 기금이자 축

소로 장학금 지급 금액이나 지원 대상이 해마다 줄어드는 등 위기가 계속돼 왔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진흥원은 올해 10월 '진흥원 장학사업 운영 규정'과 '진흥원 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특별지정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특별지정 장학금'이란 기부자의 의견을 반영해 장학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장학제도이다. 도와 진흥원이 특별지정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고, 적극적 홍보를

시작하자, (주)LS(4천8백만 원), 한국무역협회(구자열 회장, 1천2백만 원), (주)정석케미칼(김용현 대표이사, 5천만 원), 농협도청점(1천만 원) 등에서 기탁 의사 및 지정 기탁서 제출이 이어졌다. (주)LS, 한국무역협회는 장학금 활용 목적을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국제금융 인재육성으로 지정했으며, (주)정석케미칼은 지역의 미래산업에 도전할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장학금 기탁을 약속했다. 진흥원 조봉업 이사장(전북도 행정

부지사)은 "소중한 기부를 통해 도내 많은 학생들이 세계 속 금융인재와 미래산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도와 진흥원은 기탁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장학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본사 인사**  
▲고병만 군산주재기자  
명 : 의원 면직  
(11월 9일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